



전래놀이 노래 '넋물이 쫄쫄' 스틸컷.



소꿉놀이 노래 '꼬방꼬방' 스틸컷.

애니메이션으로 즐기는 국악 동요

전남도립국악단 '겨울국악동요' 시리즈

27일 공개...넋물이 쫄쫄·물루랄라 뽕뽕뽕·꼬방꼬방 판소리 아나리·동살풀이 장단 등 국악 매력 녹여내

전남도립국악단이 '집콕'에 지친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겨울국악동요' 시리즈를 발표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 국악 콘텐츠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27일 전래놀이 노래 '넋물이 쫄쫄'을 시작으로 남곡평권 대합창 '물루랄라 뽕뽕뽕', 소꿉놀이 노래 '꼬방꼬방' 등 3편의 영상을 전남도립국악단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전래놀이 노래 '넋물이 쫄쫄'은 썰매 탈 때 즐겨 부르던 전래동요 노랫말에 새로운 가락을 덧입힌 곡으로, 전남도립국악단 창작부 단원들의 익살스러운 랩(Rap)스타일의 판소리 아나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내달 3일 공개 예정인 남곡평권 대합창 '물루랄라 뽕뽕뽕'은 톨·루·랄·라·빙·퐁·뽕 등 남곡 평권들의 언어를 상상해

만든 노래다. 장구 여섯대로 연주하는 '동살풀이' 장단에 휘파람과 피리 추임새,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더해져 마치 한편의 '국악 겨울왕국'을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자 했다.

특히 이 곡은 지구온난화로 평균편의 서식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노랫말을 통해 환경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겨울국악동요 마지막 공개작인 소꿉놀이 노래 '꼬방꼬방'은 전래놀이 노래로 전해져 온 노랫말과 가락에 서정적 편곡을 더한 작품으로, 국악 앙상블과 파사로운 그림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아련한 향수를 떠올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겨울국악동요' 시리즈의 연출과 작·편곡은 '모두 다 꽃이야', '내 똥

꼬는 힘이 좋아' 등 유튜브 누적 조회 수 4,000만 뷰를 보유한 국악동요 작곡가이자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인 류형선씨가 맡았다.

애니메이션은 조준행 감독이, 노래는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과 안양중앙초, 광주교대 목포부설초 학생 등이 참여했다.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고집되어 있지 않은 창의적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국악으로 오롯이 담아낼 수 있을지를 좌표로 삼고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많은 아이들이 진심이 깃든 애니메이션과 노래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국악동요' 시리즈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원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청소년 미디어교육 공모 신청하세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내달 10일까지 접수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달 10일까지 '2022 청소년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초·중·고등학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 능력 함양과 미디어 창의인재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원 분야는 ▲동아리 미디어교육(9개교) ▲자유학년제 미디어교육(15개교) ▲고교학점제 미디어교육(1개교) ▲팩트체크 미디어교육(3개교) 등 4개 분야 28개교다.

동아리 미디어교육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송반이나 미디어 관련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디어 분야 창작활동을 집중 지원하며, 관련 전문가의 특강을 포함해 16차시(32시간) 이상 진행된다. 자유학년제 미디어교육은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제를 시행중인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13차시(26시간) 동안 미디어 분야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교육 등을 실용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경우 미디어 관련 교과 혹은 교과과정과 연계해 34시간 내 수업으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 미디어교육에 지원하면 된다.

한편 작년 신설된 팩트체크 미디어교육은 청소년들의 정보 분별력 향상을 목표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4차시(총28시간)로 이뤄진 교육은 팩트체크 활동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어떤 정보를 믿고, 걸러야 할지 알려준다. 이 교육은 대회 참여 연계형 교육으로 '2022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장(대상) 등 7개상을 수여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된다. 접수를 원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동아리, 자유학년, 고교학점제: beronicle@kcmf.or.kr / 팩트체크: 1519@kcm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판소리 등 7개...강좌별 20명

(서임방울국악진흥회가 임방울국악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임방울국악교실'은 광주공민회 팔자락에 위치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시민체험장'에서 운영된다.

진흥회는 국장 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악의 성지로서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예향광주의 예술 역량을 축적하고,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국악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악교실은 ▲판소리 ▲고법 ▲민요 ▲한국무용 ▲장구 ▲가야금 병창 등 7개 과목으로, 강좌별 20명 이상을 모집한다. 수업은 주 1회 2시간으로, 수강료는 월 1만 원이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4일부터 (서임방울국악진흥회에 방문 또는 전화접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매화 통해 내미는 위로의 손길



김양수 작 '아 매화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 관계의 단절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2022년. 세상을 뒤덮고 있는 고통과 갈등을 매화를 통해 어루만지는 한국화가 김양수의 개인전이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김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학교에서 석사를 전공했다.

작가는 매화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치유의 손길을 내민다. 전시에는 그가 고향에 귀향해 가슴으로 그린 400호 크기의 대작에서부터 10호 소품에 이르는 매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부는 시기부터 꽃을 피워 추위를 견뎌내며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 정신의 귀감이 돼 왔다.

조선 성리학의 주춧돌을 놓은 퇴계 이황 선생은 '매화는 일생을 즐기고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는 시구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강렬한 저항 의지를 품은 민족정신을 노래한 시를 발표하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육사한 민족시인 이육사의 '광야'의 구절 '지금 내 내리고/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서도 매화를 찾아볼 수 있듯 매화는 오랫동안

고매한 정신을 극명하게 담아내는 상징으로 쓰였다.

신성한 자연과 생명에 담겨진 정신성을 화폭에 그려내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도 작품 속에 자연이 가진 의미를 마치 시와 같은 함축된 은유로 녹여낸다. 이는 감성의 교감을 통한 사유의 소통을 추구하려는 깊은 작가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는 지난 2008년 '내 속 뜰에도 상사화가 피고진다'를 시작으로 네 권의 시화집을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오지현 기자

코로나 넘어선 한류열풍...콘텐츠 수출 14조 돌파

코로나19 사태에도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1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발표한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2,428만 달러(한화 14조2,000억 원)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총수출액이 2019년보다 5.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 수출 증가율은 출판 61.1%, 영화 43.0%, 만화 36.3%, 방송 28.5%, 게임 23.1% 등이다.

수출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캐릭터(7억 1,581만 달러), 방송(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6억 9,199만 달러), 음악(6억 7,963만 달러) 순이었다.

같은 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 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 원보다 1.2% 증가했다. /연합뉴스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카페

객실

메시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